

9월 5일 폐회한 조계종 13대 중앙종회 무엇을 남겼나?

# 계파이익 챙기고 종단발전 뒷전에

조계종 통합종단 출범 후 13번째 중앙종회가 9월 5일 사실상 무리됐다.

중앙종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첫 회기 시작에 앞서 의원선서를 한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맹세를 얼마나 지켰는지 물어 봐야 한다.

**종책보다 계파의 이해가 먼저**

12대 중앙종회가 문중과 계파의 이해로 움직였다면, 13대는 계파 구도가 명확해지고 여야의 개념도 강화됐다. 정당개념의 계파가 공식화 되고, 이런 와중에 종회내 다수의석 확보와 총무원 집권이라는 정당적 성격을 표명한 계파가 탄생하기도 했다. '공격수' 역할을 하는 야당은 여당에 밀리지 않기 위해 정치공세를 계속했다.

종회의장 범등 스님은 "정대·법장·지관 스님 등 3명의 총무원장 집행부를 거처면서 큰 분란 없이 4년을 마감 할 수 있었던 것은 종회의원들의 애증심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13대 종회를 바라보는 종도들의 시각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중앙종회가 종도들의 변화된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회의원 스스로의 노력은 미미했다. 종도 대의기구라는 중앙종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 계파의 이해를 대변·옹호하는 중앙종회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전문성·추진력 부족도 문제**

13대 종회는 155~171회까지 17

## 회의 17차례 열어 개의를 절반 이하 '본격 정치 마당' 고착... '초심 잃지 말아야'



조계종 13대 중앙종회가 9월 5일 17회 회의로 사실상 마감됐다. 13대 중앙종회는 지난 4년간 갈수록 정치화 되어가는 중앙종회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번의 회의를 열었다. 총 125일의 회기 가운데 55일(44%)만 개의되고 대부분은 회기를 단축한 채 폐회했다.

그나마 156, 159, 168회는 성원 미달로 개최도 못하고 유회했다. 출석률은 평균 70%를 밑돌았다.

4년 동안 사무처로 접수돼 종회에서 논의한 안건은 모두 230건, 이 가운데 210개 안건이 상정됐다. 12대 중앙종회에서 457건이 상정된 것과 비교하면 안건을 사전에 심사하는 상임위의 역할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 가운데 순수한 법안 처리는 83건이 제출됐고 고작 14건(17%)만 가결됐다. 그나마 의원발의로 처리된 안건은 단 1건에 그쳤고, 대부분 원안을 수정하거나 철삭해 원래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종헌준비제개정초위"가 재판에 법안개정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13대 중앙종회의 유일한 위안이다. 그러나 꼭 필요한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이해에 매몰됐다. 기초위가 발의한 종헌준비 개정안 대부분이 증진들의 방해로 부결되거나 폐기 처리되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조선에 최연소 의원이었던 보경 스님은 "종단의 중심에서 선배스님들에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도 "종단의 법과 제도가 세속의 정치적 논리를 달아지면 안될 것이다. 종교집단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사회적 종단 위상 제고 소홀**

불교가 가진 사회적 위상에 맞는 역할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도 문제다.

북한산 관동문제, 지옥스님 단

식,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 도산 성보문화재 반환 등 불교와 관련된 대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도 고작 종회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는 수준에 머물렀다.

종단 현안에 맞춰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정쟁의 목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13대 중앙종회는 △종헌준비제개정특위 등 6개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진정한 의미의 정책 관련 특위는 '사설사암조사특위'가 유일했다.

종회 사회분과 일문 스님은 "몇 차례 회의 소집 정도로 추진력을 갖고 나서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인데다, 사회분과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너무 많았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책임성 강화와 계파 극복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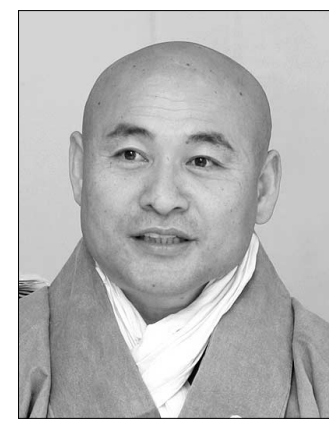
지난 4월 본지가 종회의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활한 종회활동을 막는 요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5.5%가 '문중과 계파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종단의 화합을 이끌어야 할 종회의원 스스로 갈등과 대립에 빠지는 모순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다.

조선의원 이암 스님은 "종교를 앞세운 종단 대의단체인 종회가 계파의 입장에 매몰됐다"며 통렬한 자기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11월 9일 새롭게 개원할 14대 중앙종회가 13대 중앙종회의 오류를 답습하지 않는 길은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중앙종회의원의 직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원 선서의 초심을 잃지 않는 데 있다.

## “경전 통해 깨달음의 길 여는 계기 되길”

Interview '10대 강백 초청... 대법회' 여는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불자는 항상 경전을 읽고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수행의 생활화는 경전을 버리고 이뤄질 수 없습니다. 경전을 통한 공부가 초석이 될 때 참선 등의 다른 수행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월 16일부터 10주간 매주 토요일(오후 2시~5시) '경전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주제로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봉선사 현대불교 공동주최)를 여는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사진)은 불자의 삶과 수행에 경전 공부의 기본임을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이번 법회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와 상징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간화선을 중심으로 하는 선 수행에만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제기다.

"경전도 수행의 방편이고 그를 통해 깨달음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열 분의 강백 스님들이 명확하게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팔만대장경이 없었다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은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차례에 걸친 경전 결집과 경판의 제작, 오늘날의 한글대장경 전산화에 이르기까지 경

경원의 한글대장경 불사도 운허 스님과 월운 스님의 큰 노력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실 월운 스님이 직접 강의를 하시는 능엄학원의 간담없는 정진도 교종본찰로서의 면모를 장엄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설대법회의 마지막 순서는 11월 25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보살계 수계법회'. 철안 스님은 "10주간 경전의 세계를 이해하고 계를 받음으로써 보다 바듯한 불자의 삶과 정진을 서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강설대법회가 믿음과 앎과 실천을 통해 무상대도를 이루는 인연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스님은 "봉선사의 모든 대중과 본말사의 각 문중이 한 마음으로 법회를 준비하고 있어 교구 화합의 기회도 삼고 있다"고 말했다.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는 당대 최고의 강사 스님이 하나의 경전을 주제로, 해당 경전이 가르치는 깨달음의 길을 펼쳐 보인다. 강의 말미에는 스님과 재가자가 한 명씩 질문을 통해 강의 내용을 더욱 심화한다. (본지 594호 1면 기사 참조)

전불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전이야말로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는 절대적인 안내자임을 증명하는 일이라 봅니다."

철안 스님은 이번 법회가 봉선사에서 열린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봉선사는 조선조 이래로 교종본찰의 명맥을 이어 온 사찰이기 때문이다.

"1934년 월초 스님께서 사유지 2만 8천 평을 출연해 흥법강원을 설립하시며 교학도량의 맥을 중창하셨고 숭상좌인 운허 스님을 이어 지금의 조실 월운 스님에 이르기까지 그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국역

임연태 기자

### 조계종 포교원장 공석 언제까지?

조계종 포교원을 대표하며, 종단의 포교에 관한 제반업무를 통괄하는 자리. 포교원장은 포교원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비롯해 사찰, 포교당 및 기타 불교단체 등의 포교업무 관할권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교원 산하 교육기관, 포교단체, 신도단체, 경승, 군승, 교법사, 국제포교사, 전교사 포교업무 지도 감독권도 갖고 있는 등 '포교의 정점'이다.

이처럼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조계종 포교원장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9월 4일, 4대 포교원장 도영 스님 퇴임 후 후임 포교원장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교법'에 따르면 포교원장은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제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서 행해가 청정하고 학식이 탁월해 포교에 관한 높은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하지만 9월 4-5일 열린 임시중앙종회 이전 포교원장 추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불교계 일각에서는 중앙종회의원 직능직 선출과 관련 있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20석 중 관례상 2석은 포교원장 몫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자기 포교원장 선출은 올 11월 열리는 정기중앙종회로 넘

어갔다.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14대 종회에서 자기 포교원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포교원장 공석이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대 종회가 개원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따라 계파간 합종연횡과 안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3월 임시중앙종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포교 관련 실무자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포교원 한 관계자는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포교원장 공석이 장기화 될 경우 포교업무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 포교 업무 차질... 하루가 급한데...

빨라야 11월 정기종회에서... '내년 3월設'도

남동우 기자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비구니원으로 명사법계 '동의' 총무원장선거법 개정 등 부결 조계종 171차 임시종회 폐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등은 9월 4일 제171차 임시종회를 열고 현등사 사리구 등의 환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건, 비구니 원로(해운, 광우, 묘연, 지원,

조용수 기자

# 법상종 용화구족계 및 생전 예수재 대법회

미륵존불님께 귀의하옵고

중생교화와 사중불사에 늘 애쓰시는 각 삼, 암 주지, 포교사님들께 불보살의 자비광명이 증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병술년 윤 7월을 맞아 중생들의 다집생애에 지은 업장소멸과 죄업을 생전에 참회하고 인로왕 보살님과 염부제 시왕에게 선법을 닦아 내생에 성불코져 발원하는 생전 예수재를 다음과 같이 본 종단에서 합동으로 봉행하오니 각 사, 암 주지스님께서는 수회 동참하셔서 법회가 원만이 회향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06년 9월 19일(음 윤 7월 27일) 오전 9시 (화요일)

나. 장 소 : 법상종 총본산 쌍미륵사

다. 봉 행 : 본종단 교육원장 교덕스님과 비구니 스님들의 바라춤 시연과 티벳 린포체 스님을 포함하여 10명 스님이 증명으로 참석하여 생전예수재 법회를 더욱 장엄하고 성대하게 봉행함

라. 문의전화 : 총무원 031) 653-1250 ~ 1 / 팩 스 031) 653-1253

※ 총무원으로 전화 또는 팩스로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大韓佛敎法相宗總務院 敎育院